

미국, 2005년도 농산물무역 전망

최근 미국 농업부(USDA)는 2005년(이하 회계연도 기준) 농산물 수출이 560억 달러에서 590억 달러로 상향조정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2005년도 전망은 1996년 598억 달러, 2004년 623억 달러에 이어 3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한편 이런 발표와 함께 마이크 조한스(Mike Johanns) 농업부 장관은 WTO와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서 미 농민들에게 경제적 기회를 대폭 확대하고 유지하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2005년도 농산물 수입은 580억 달러에 달하며, 2003년 이후 빠른 증가세를 보이면서 지난 35년 동안 상승세를 지속해 왔다. 이에 따라 2005년 무역수지는 10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여기서는 2005년 2월 USDA의 경제연구소(ERS)가 발표한 농산물 무역전망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1. 총괄 전망

2005년도 미국 농산물 수출액은 590억 달러에 달하며, 지난해 11월 전망보다 30억 달러 상향조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수출이 수입을 앞서 농산물 무역수지는 1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할 것이다. 곡물, 대두, 면화의 세계의 공급 증대와 함께 가격 하락세가 지속되고, 외국으로부터의 수출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수출액은 2004년 수준 넘어서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2005년도 2월 수출 전망은 주요 수출 경쟁국 대비 미 달러의 평가절하, 경기회복에 따른 세계 수요의 증가세를 반영하여 상향조정되었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대두와 면화는 가격 호조로 수출액이 증가했으며, 세계 수요의 증대와 미 달러화의 약세에 힘입어 원예작물, 낙농품과 돼지고기의 수출액은 최고 수준에 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농산물 수입은 580억 달러에 달하며, 최고 수준을 경신할 것으로 보인다. 수입 수요는 국내 인구와 소득 증가세에 힘입어 강세를 지속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최근 추이를 감안할 때, 원예농산물의 수입이 연간 50~60%를 차지할 것으로 보이며, 생우, 쇠고기와 가공식품의 수입도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표 1 미국 농산물 무역 현황

단위: 10억 달러

연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년 전망	
						2004. 11.	2005. 2.
수출	50.7	52.7	53.3	56.2	62.3	56.0	59.0
수입	38.9	39.0	41.0	45.7	52.7	56.0	58.0
무역수지	11.9	13.7	12.3	10.5	9.6	0.0	1.0

주: 2005년 2월 9일 세계 농산물 공급 및 수요 추정 보고서(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report)의 전망을 반영함.

자료: ERS, USDA, 농산물 무역전망(Outlook for U.S. Agricultural Trade)

2. 경제전망

세계 경제는 꾸준히 증가하겠지만, 2005년에는 이 증가세가 다소 둔화될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경제성장률은 세계 평균 수준인 3.4%보다 낮은 3.3%에서 유지될 것이다. 2004년 세계 경기 상승세에 힘입어 공산품은 가격상승 압력을 받고 있으며, 최고 수준에 달한 고유가의 행진 아래 한동안 이런 추이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공산물 가격상승 및 금리 인상 등의 요인들은 세계 경제성장에 악재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2.1. 선진국 경제전망

2004년 최저 수준에 머문 미국 장기 금리는 세계 자금의 수요증가와 높은 단기금리를 감안할 때 2005년에도 꾸준히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앙은행인 미연방준비위원회(Federal Reserve Board: FRB)는 단기금리 인상을 단행했으며, 올해에도 이런 기조를 계속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미국의 주요 무역 상대국인 캐나다는 2005년에 3% 이상의 GDP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다. 최근 캐나다는 공산품의 수요 증가와 투자 호조에 따른 미 달러 대비 캐나다 달러의 평가절상으로 인해 대미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캐나다 중앙은행(Bank of Canada)은 단기금리를 미국 금리에 비해 약 0.5% 높게 유지함으로써 캐나다 달러를 지지하고 있다. 2004년 일본의 GDP 성장률은 4.2%에서, 2005년에는 미국과 중국에 대한 수출둔화로 인해서 2.4%로 하락 할 것으로 보인다.

유럽연합(EU)의 GDP 성장률은 다소 둔화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2005년에는 2.4%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미 달러에 대한 유로의 평가절상으로 수출경쟁력은 떨어지고 있다.

2.2. 중국 경제 부상에 따른 세계 경제전망

중국은 세계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 2003년 말~2004년 중국은 급격한 경제성장으로 인해 내수가 증가하고, 이에 따라 원자재와 중간재의 가격 상승을 부추긴 바 있다. 중국의 원자재 수입 증가로 인해서 세계 운임 또한 증가했다. 중국은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서 신용할당을 단행함 불구하고, 2004년과 2005년 중국의 총 수입 규모는 미국과 유사한 수준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런 중국의 수입 증가세는 2005년 세계 경제성장에 호조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2004년에 9%대를 초과한 GDP 성장률이 2005년에는 8%대를 초과할 것으로 보인다.

2.3. 개도국 경제전망

개도국의 경제성장률은 2005년에 5%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아시아도 빠른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나타났다. 아시아의 경제성장률은 2004년에 7%, 2005년에 6%를 넘어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인도는 2004년에 7%를 넘어서는 경제성장률을 기록했고, 2005년에도 거의 7%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2005년 한국과 동남아시아의 경제성장률은 5~6% 선에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라틴 아메리카의 5대 주요 경제국인 아르헨티나, 브라질, 멕시코, 베네수엘라, 칠레 등은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 이 지역의 경제성장률은 2004년에 4%에 이어 2005년에도 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브라질의 경제성장률은 중국으로의 수출증가에 힘입어 3.5% 이상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아르헨티나의 경제성장률은 2004년에 7%에서, 2005년에는 이보다 낮은 4% 정도를 유지할 것으로 나타났다. 아르헨티나는 폐소화의 평가절하에 힘입어 2005년 농산물 수출이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경제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는 멕시코는 2004년에 이어 2005년에도 4%대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강력한 수출지향 정책을 추구하는 칠레는 2004년에 이어 2005년에도 5% 정도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할 것이다.

구소련 지역 국가들의 경제는 꾸준히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이며, 아프리카의 경제성장률은 2004년에 평균 4%를 넘어선 반면, 경제성장 달성수준은 국가마다 다양하게 나타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2.4. 환율

최근 환율(농산물 무역 가중치 적용)은 2002년 2월 최고치를 경신한 이후 2004년 12월까지 18%나 평가절하 되었다. 이런 추이에도 불구하고, 2005년에도 미 달러화의 평가절하는 경상수지 적자의 누적과 함께 지속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의 수출은 증대하고, 수입은 감소하는 추이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미 달러는 2002년 이후 주요 OECD 회원국의 통화에 비해 평가절하 되어 왔다.

3. 품목별 농산물 수출 전망

2005년 곡물과 사료 수출액은 잡곡의 수출 감소세와 곡물 가공품의 수출 증가세가 상쇄된 결과 지난해 11월 전망과 동일한 151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밀과 밀가루의 수출액은 20만 톤의 밀수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41억 달러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이는 미국의 평균 밀수출 단가는 톤당 154달러로 2004년 평균 수준에 비해 감소한 결과이다. EU는 지난해 11월 전망보다 세계 밀 시장에서의 경쟁력이 다소 둔화된 반면, 고품질 밀에 대한 세계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이다.

2005년 잡곡 수출량과 수출액은 각각 5,300만 톤, 52억 달러에 달하며, 지난해 11월 전망에 비해 450만 톤, 3억 달러 하향조정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감소 추이는 주로 옥수수과 수수의 수출 감소에 기인하고 있다. 수출단가는 2004년보다 매우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미국 옥수수 작황의 호조에도 불구하고, 옥수수 수출량은 세계 잡곡 생산과 아르헨티나와의 수출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약 400만 톤 감소하였다. 수수 수출량은 멕시코의 작황 호조에 따른 수입 감소로 약 50만 톤 감소하였다. 미국 옥수수와 수수의 수출단가는 톤당 98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의 쌀 수출량은 동남아시아와 중동으로의 수출증가와 가격 경쟁력 회복에 따라 지난해 11월 전망보다 10만 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수출량 증가와 함께, 수출량에서 차지하는 정곡 비중의 증가에 따른 수출 단가의 상승으로 수출액은 11월 전망보다 1억 달러 증가한 1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2005년 수출량은 2004년과 동일한 반면, 수출

액은 올해 작황 호조에 따른 수출단가의 하락으로 2억 달러 감소하고 있다. 2005년 유지종자와 그 가공품의 수출량은 전년대비 160만 톤 증가한 3,740만 톤에 달하는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수출액은 대두 수출 단가의 상승세에 힘입어 12억 달러 증가한 99억 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식물성 기름과 단백질 농축식품과 같은 유지종자 가공품에 대한 수출은 수요 증대와 가격 경쟁력을 높이는 달러화의 약세에 힘입어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2005년 대두 수출액은 11월 전망과 동일한 수준에서 유지될 것으로 보이지만, 수출액은 수출 단가가 톤당 223달러로 상승함에 따라 4억 달러 증가한 61억 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에 대한 대두 수출은 매우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미국 대두의 상당 부분은 남미에서 생산되는 대두가 올 봄에 유통되기 이전에 유통연도 상반기 동안에 수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대두유와 대두박의 수출 전망 또한 매우 낙관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2005년 면화 수출량은 290만 톤으로 지난해 11월 전망보다 10만 톤 상향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수출액은 큰 폭의 수출증가와 소폭의 수출단가 상승으로 3억 달러 증가한 34억 달러에 달할 것이다. 면화의 국제가격은 세계 면화의 생산증가에도 불구하고, 세계 수요가 강세를 지속할 것으로 보임에 따라 지난해 11월 전망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중국의 면화 수입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보이며, 미국의 수출 가능한 물량은 작황 호조에 따라 예상보다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 생축, 가금육, 낙농품 수출액은 지난해 11월 전망보다 7억 달러 증가한 115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액 증가의 대부분은 적색육과 낙농품이 차지할 것이다. 2005년 적색육의 수출량은 11월 전망보다 10만 톤 증가한 140만 톤, 수출액은 3억 달러 증가한 34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돼지고기 수출이 호조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돼지고기의 수출은 일본, 멕시코, 캐나다로의 수출 증가에 힘입어 80만 톤에 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쇠고기 수출액은 멕시코로의 수출 회복세와 수출 단가의 상승에 힘입어 다소 증가할 전망이다. 한편 이런 수출전망에는 한국과 일본에 대한 쇠고기 수출 재개 여부를 제외하고 있다. 반면, 최근 미국과 일본은 양국 정부가 승인한 특정 조건에 따라 쇠고기 무역을 재개하는데 합의한 바 있다.

2005년 낙농품 수출액은 건조분유의 수출신장세에 힘입어 지난해 11월 전망보다 4억 달러 증가한 17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내다보인다. 달러화의 약세는 가격 경쟁력을 서서히 회복시키고 있다. 2005년 낙농품 수출시장은 수요에 비해 공급이 적고, 이에 따라 높은 가격세가 유지될 것으로 내다보인다. 현재 미국의 주요 분유 시장은 멕시코뿐만 아니라 전통적으로 호주와 뉴질랜드가 강세를 보인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이다.

2005년 육계의 수출액은 가격 하락세와 이에 따른 수출량 증대로 지난해 11월 전망보다 1억 달러 증가한 18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가축류의 수출은 다소 감소하는 반면, 생축의 수출은 거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전망된다. 원예농산물의 수출은 지난해 11월보다 7억 달러 증가한 145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내다보인다. 이런 증가세의 요인은 주로 해외 수요의 증가와 달러의 약세에 따른 수출가격의 상승에 있다.

농산물 무역수지 흑자의 대부분은 캐나다와 멕시코, EU로의 수출액 증대에 기인한다. 견과류, 신선 및 가공 과일류, 신선 및 가공 채소류 등의 수출액은 지난해 11월 전망보다 각각 2억 달러씩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스페인에서의 아몬드 작황 저조와 세계 피스타치오(pistachio)의 재고 감소에 따라 이들 품목의 가격은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고, 그레이프프루트(감귤류의 일종)의 시세는 2004년 생산이 전년 대비 68% 감소함에 따라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캘리포니아 오렌지 작황은 전년 대비 16% 상승할 것으로 보이지만, 수출물량은 줄어든 것으로 전망된다. 토마토와 상치 등 신선채소의 가격도 상승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향유(essential oil), 포도주와 같은 가공 원예농산물의 수출 또한 호조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표 2 품목별 농산물 수출액 전망

단위: 10억 달러

	2003	2004	2004	2005년 전망	
	10월~12월			2004. 11.	2005. 2.
곡물/사료 ¹⁾	4.343	4.138	17.940	15.1	15.1
밀/밀가루	1.116	1.115	5.170	4.1	4.1
쌀	0.309	0.266	1.214	0.9	1.0
잡곡 ²⁾	1.626	1.470	6.469	5.5	5.2
옥수수	1.442	1.342	5.841	5.0	4.7
사료곡물	0.719	0.673	2.684	2.6	2.6
유지종자류	4.871	4.185	11.171	8.8	10.0
대두	3.866	3.075	7.463	5.7	6.1
대두박	0.353	0.327	1.079	0.9	1.0
대두유	0.115	0.128	0.288	0.3	0.3
축산물	2.419	1.960	7.048	6.9	7.1
쇠고기/돼지고기/부산물	1.377	0.930	3.408	3.1	3.4
가축류	0.412	0.395	1.767	1.8	1.7
가금류	0.693	0.749	2.513	2.6	2.7
닭고기 ³⁾	0.460	0.508	1.686	1.7	1.8
낙농품	0.269	0.449	1.272	1.3	1.7
담배	0.323	0.317	1.050	1.1	1.1
면화류	0.991	0.703	4.537	3.1	3.4
종자류	0.268	0.289	1.020	0.8	0.8
원예작물	3.502	3.872	13.261	13.8	14.5
과일 및 조제품	0.964	1.002	3.820	3.9	4.1
채소 및 조제품	0.821	0.902	3.141	3.3	3.5
견과류 및 조제품	0.662	0.800	1.888	2.0	2.2
설탕 및 열대성작물	0.657	0.682	2.486	2.5	2.6
주요 벌크 품목 ⁴⁾	8.231	6.946	25.825	20.3	20.9
전체	18.336	17.345	62.299	56.0	59.0

주: 1) 두류, 가공 곡물 포함.

2) 옥수수, 보리, 사탕수수, 귀리, 호밀 포함.

3) 연방 검역대상 품목만 포함.

4) 밀, 쌀, 잡곡, 대두, 면화, 담배 포함.

자료: USDA, ERS.

표 3 품목별 농산물 수출량 전망

단위: 백만 톤

	2003	2004	2004	2005년 전망	
	10월 ~ 12월			2004. 11.	2005. 2.
밀	6.932	6.824	31.148	25.8	26.0
밀가루	0.078	0.065	0.276	0.3	0.3
쌀	1.049	0.862	3.722	3.6	3.7
잡곡 ¹⁾	14.671	14.297	52.634	57.5	53.0
옥수수	13.120	13.098	47.579	52.0	48.0
사료곡물	3.066	2.680	11.751	12.1	10.8
유지종자류	15.895	16.959	32.399	35.8	37.4
대두	13.470	13.999	24.447	27.5	27.5
대두박	1.402	1.710	3.941	4.9	5.2
대두유	0.180	0.219	0.424	0.5	0.6
쇠고기/돼지고기/부산물	0.502	0.405	1.414	1.3	1.4
닭고기 ²⁾	0.627	0.674	2.115	2.2	2.4
동물성기름	0.000	0.000	1.188	1.2	1.2
담배	0.049	0.049	0.163	0.2	0.2
면화류	0.648	0.560	3.022	2.8	2.9
원예작물	2.119	2.104	8.039	8.1	8.1
설탕 및 열대성작물	0.318	0.328	1.264	1.3	1.3
주요 벌크 품목 ³⁾	36.819	36.591	115.135	117.4	113.3

주: 1) 옥수수, 보리, 사탕수수, 귀리, 호밀 포함.

2) 연방 검역대상 품목만 포함.

3) 밀, 쌀, 잡곡, 대두, 면화, 담배 포함.

자료: USDA. ERS.

4. 지역별 농산물 수출 전망

2005년도 미국의 최대 농산물 수출시장은 서반구 지역의 국가가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서반구로의 수출은 아시아에서보다 높은 수준을 계속 유지할 것으로 보이며, 북미로의 농산물 수출액은 동아시아에서보다 더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단일국가로서 미국의 최대 농산물 수출시장은 캐나다로 2005년도 수출액은 102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내다 보고 있다. 미국 농산물의 제2대 수출시장은 85억 달러를 수입한 멕시코이며, 다음으로는 77억 달러를 수입한 일본이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캐나다로의 수출액은 지난해 11월 전망보다 상승한 102억 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가격 상승과 원예 농산물의 수출 증가에 기인하고 있다. 돼지고기, 가금육, 스낵류, 가공 과일류, 견과류 등의 수출 또한 호조를 보일 것으로 내다보인다.

멕시코로의 수출은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원예 농산물 가격 상승, 쇠고기와 돼지고기, 낙농품 등의 수출 증가세에 힘입어 수출액은 85억 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인다. 사탕수수의 수출은 멕시코의 잠곡 작황 호조로 인해서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남미로의 농산물 수출액은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되는 반면, 일부 국가의 경우 다소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과일류와 채소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반면, 옥수수의 수출은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도 아시아로의 수출은 다소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수출 증가의 대부분은 미국의 사료곡물과 원예 농산물 수출이 확대되고 있는 동남아시아로부터 발생한 것이다. 2005년 중국으로의 수출액은 46억 달러로 지난 11월 전망과 동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005년 수출액은 대두와 면화 가격의 하락으로 인해서 2004년에 비해 크게 감소할 전망이다. 한편 중국은 제5대 미국의 농산물 수출시장이 될 것으로 내다보인다.

2005년 일본으로의 수출액은 지난해 11월 전망과 동일한 수준으로 2004년에 비해 16% 감소한 77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는 일본으로의 쇠고기 수출금지에 대한 가정과 대두가격의 현저한 감소에 기인하고 있다. 한편 한국, 홍콩, 대만으로의 수출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2005년 유럽/유라시아로의 수출은 지난해 11월 전망보다 상당히 증가할 전망이다. 87억 달러에 달하는 수출액 가운데 유럽연합은 70억 달러를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스페인의 아몬드 작황 저조로 인해서 미국은 유럽시

장으로의 수출증대를 피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EU는 제4대 미국의 농산물 수출시장을 유지하게 될 것이다. 구소련의 12개 회원국으로의 2005년 수출은 가금육과 담배 수출 호조에 힘입어 2004년에 비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005년 중동으로의 수출은 전년대비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터키로의 면화 수출이 크게 증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005년 아프리카로의 수출은 2004년 수준에 비해 감소할 것으로 보이지만, 2004년 11월 전망보다는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표 4 지역별 농산물 수출액 전망

단위: 10억 달러, %

	2003	2004	2004	2004년 비중	2005년 전망	
	10월 ~12월				2004. 11	2005. 2
아시아	7.724	6.381	24.345	39.1	20.5	20.7
동아시아	6.603	5.228	20.566	33.0	17.3	17.0
일본	2.369	1.986	8.531	13.7	7.7	7.7
중국	2.456	1.902	6.096	9.8	4.6	4.6
홍콩	0.338	0.259	0.991	1.6	0.9	0.8
대만	0.639	0.561	2.141	3.4	1.8	1.7
한국	0.800	0.511	2.778	4.5	2.3	2.2
동남아시아	0.947	0.939	3.117	5.0	2.6	3.1
인도네시아	0.312	0.259	0.978	1.6	0.8	1.0
필리핀	0.198	0.208	0.684	1.1	0.6	0.7
말레이시아	0.102	0.103	0.376	0.6	0.3	0.4
태국	0.244	0.253	0.677	1.1	0.6	0.7
남아시아	0.090	0.214	0.663	1.1	0.6	0.6
서반구	6.083	6.284	23.180	37.2	22.3	23.6
북미	4.741	4.962	17.943	28.8	17.7	18.7
캐나다	2.400	2.529	9.540	15.3	9.7	10.2
멕시코	2.341	2.432	8.403	13.5	8.0	8.5
카리브연안국	0.479	0.478	1.842	3.0	1.7	1.8
중미	0.362	0.393	1.397	2.2	1.3	1.5
남미	0.501	0.452	1.997	3.2	1.6	1.6
브라질	0.102	0.056	0.325	0.5	0.2	0.3
콜롬비아	0.138	0.131	0.599	1.0	0.5	0.6
베네수엘라	0.091	0.079	0.390	0.6	0.3	0.4

주: 1) 기존 EU-15와 10개 신생 가맹국 포함

2)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불가리아, 루마니아, 유고슬라비아 포함

3) 발트 공화국을 제외한 15개 소련연방 공화국

자료: USDA, ERS.

(표 4) 계속

	2003	2004	2004	2004년 비중	2005년 전망	
	10월 ~12월				2004. 11	2005. 2
유럽/유라시아	2.789	2.883	8.246	13.2	7.7	8.7
EU-25 ¹⁾	2.416	2.408	6.816	10.9	6.5	7.0
기타 유럽 ²⁾	0.120	0.111	0.430	0.7	0.3	0.4
FSU-12 ³⁾	0.254	0.365	1.001	1.6	0.9	1.3
러시아	0.195	0.261	0.736	1.2	0.7	1.0
중동	0.688	0.756	2.747	4.4	2.3	2.6
터키	0.165	0.192	0.919	1.5	0.7	0.9
사우디아라비아	0.087	0.096	0.353	0.6	0.3	0.4
아프리카	0.738	0.699	2.991	4.8	2.5	2.6
북아프리카	0.447	0.377	1.636	2.6	1.3	1.3
이집트	0.274	0.233	0.979	1.6	0.8	0.8
사하라남부	0.291	0.321	1.355	2.2	1.2	1.3
오세아니아	0.175	0.203	0.568	0.9	0.5	0.6
기타	0.137	0.139	0.222	0.4	0.2	0.2
전체	18.336	17.345	62.299	100.0	56.0	59.0

주: 1) 기존 EU-15와 10개 신생 가맹국 포함

2)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불가리아, 루마니아, 유고슬라비아 포함

3) 발트 공화국을 제외한 15개 소련연방 공화국

자료: USDA, ERS.

5. 품목별 농산물 수입 전망

2005년 미국 농산물 수입액은 580억 달러로 지난해 11월 전망보다 20억 달러 상향조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런 수입 증가 요인은 물량 증가 뿐만 아니라 달러의 약세와 운송연료 비용의 증가에 따른 금액의 상승에 있다. 주요 수입 수요의 지표인 미국의 경제성장률은 2005년에 평균 수준 이상인 3.3%에 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식료 및 농산물 수입량은 인구와 GDP 및 소득 증가를 감안할 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수입액은 수입량 증가율과 미 달러의 평가절하에 따른 수입단가의 상승률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미국 농산물 수입량은 2005년까지 평균 5%로 증가하고 있으며, 2004년 이후 10%의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수입단가도 수입량과 동일한 비율로 증가하고 있다.

2005년 농산물 수입액이 지난해 11월 전망에 비해 20억 달러 상향조정된 것은 식물성 기름, 생우, 원예 농산물의 수입이 각각 8억 달러, 3억 6,000만 달러, 8억 달러 증가한데 그 이유가 있다. 특히 지난해 11월 식물성 기름의 수입 전망은 저평가된 것으로 보인다. 올리브유의 수입단가는 달러 대비 유로의 평가절상으로 인해 14%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코코넛 유의 수입량과 수입단가도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캐나다 산 생우의 수입규제 완화로 인해서 2005년 미국의 생축 수입액은 지난해 11월 전망보다 6억 달러 증가한 20억 달러로 상향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은 USDA의 규정에 따라 30개월 이하의 캐나다 산 생우 수입을 허용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캐나다와 멕시코 산 생우의 총 수입량은 250만 두에 달하며, 쇠고기 수입액은 1억 달러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30개월 이상의 캐나다 산 생우와 쇠고기에 대한 수입금지와 도축율의 감소에 따라 가공 쇠고기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돼지고기 수입액은 가격 상승에 따라 1억 달러 상향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2005년 축산물(가공품 포함)의 총 수입액은 지난해 11월 전망에 비해 8억 달러 상향조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005년 원예 농산물의 수입액은 256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보이며, 지난해 11월 전망보다 8억 달러 상향조정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증가세는 신선 및 냉동 채소가 6억 달러, 견과류 및 조제품 3억 달러, 포도주 1억 달러, 향유 1억 달러, 가공 과일류 및 채소류 3억 달러의 수입 증가에 따른 것이다. 이런 고가 품목의 수입이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 반면, 2005년 신선 및 냉동 채소류와 맥주의 수입은 각각 2억 달러, 3억 달러 하향조정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부 주요 원예 농산물의 2005년 수입액은 수입단가의 상승으로 상향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수입단가의 상승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수입품목은 딸기(35% 상승), 포도(6% 상승), 과일주스(20% 상승), 견과류(29% 상승),

채소류(13% 상승) 등으로, 이들 품목은 미국의 계절적인 생산변동을 원활히 조절해 주는 남반구에서 수입될 것이다. 이 밖에 수입단가의 상승이 예상되는 수입품목은 식물성 기름(12% 상승), 곡물 가공품(6% 상승), 돼지고기(25% 상승), 육류 부산물(11% 상승), 돼지(35% 상승), 커피(15% 상승), 설탕(7% 상승), 치즈(15% 상승), 카세인(26% 상승) 등이다. 이들 품목의 대부분은 캐나다와 유럽연합과 같이 달러에 비해 평가절상을 경험하는 국가로부터 수입될 것이다.

신선 및 냉동 채소류의 수입은 플로리다 지역의 허리케인 피해로 인한 생산 감소를 보완하기 위해서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2005년 토마토의 수입액은 전년 대비 55%, 피망과 칠리고추는 59%, 브로콜리와 꽃양배추는 25%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견과류 가운데, 캐슈넛(cashew nut)의 수입액은 전년 대비 56%, 피칸(pecan)은 66%, 마카다미아(macadamia)는 84%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기타 주요 원예 농산물의 수입액은 지난해에 비해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특히 전년대비 벨리(berry)가 53%, 딸기 12%, 바나나 7%, 포도주스 110%, 사과 주스 8%, 오렌지주스 47%, 아스파라거스 12%, 양파 16%, 올리브 13%, 강낭콩 44%, 아티초크(artichoke)는 19%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절화류와 모목에 대한 수입 증가세는 다소 둔화될 것으로 보이지만, 절화류의 경우 밸런타인데이, 부활절, 어버이날 등에 대비한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인다.

2005년 설탕 및 가공품의 수입은 사탕수수 및 사탕무 설탕의 수입량 감소와 과자류의 수입단가 하락에 따라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코코아와 가공품의 수입량과 단가도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미국인의 고품질 커피에 대한 꾸준한 수요 증가와 함께, 커피의 수입은 금액과 물량 면에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2005년 고무류에 대한 수입액은 수입단가의 22% 상승, 수입량의 28% 증가를 반영하여 지난해 11월 전망보다 5억 달러 상향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고무와 같은 원료에 대한 세계 수요는 중국으로부터의 수입 증가와 아시아의 경기회복세에 힘입어 증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열대 농산물 가운데, 향신료, 약용식물, 천연약품의 수입은 물량과 금액 면에서 모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표 5 품목별 농산물 수입량 전망

단위: 백만 톤

	2003	2004	2004	2005년 전망	
	10월~12월			2004. 11	2005. 2
포도주	1.678	1.890	6.339	6.4	7.0
맥주류	6.812	6.379	28.379	29.0	27.0
생우	0.570	0.467	1.477	1.6	2.5
쇠고기	0.271	0.304	1.164	-	1.2
돼지고기	0.127	0.114	0.483	-	0.5
낙농품	0.103	0.093	0.378	-	0.3
곡물 및 가공품	1.090	1.225	4.530	-	5.0
과일(신선/냉동)	1.713	1.812	7.772	-	8.0
견과류 및 조제품	0.094	0.110	0.320	-	0.4
채소(신선/냉동)	1.152	1.267	4.888	4.9	5.2
식물성기름	0.465	0.501	2.254	1.8	2.3
설탕 및 가공품	0.662	0.625	2.458	2.8	2.3
코코아 및 가공품	0.297	0.259	1.209	1.3	1.1
커피 및 가공품	0.308	0.326	1.305	1.3	1.4

주: 포도주는 100리터, 생우는 백만 두수 기준이며, 낙농품은 치즈, 카세인과 버터임.
자료: USDA, ERS.

표 6 품목별 농산물 수입액 전망

단위: 10억 달러

	2003	2004	2004	2005년 전망	
	10월~12월			2004. 11	2005. 2
축산물	2.594	2.859	10.353	11.1	11.9
생축(가금류 제외)	0.453	0.444	1.320	1.4	2.0
적색육	1.307	1.450	5.527	6.1	6.0
쇠고기	0.834	0.953	3.506	3.8	3.9
돼지고기	0.315	0.353	1.330	1.4	1.5
낙농품	0.567	0.658	2.332	2.5	2.6
사료곡물	1.084	1.184	4.199	4.3	4.4
곡물	0.154	0.166	0.658	0.6	0.6
곡물가공품	0.797	0.886	2.994	3.2	3.3
원예가공품	5.528	6.260	22.918	24.8	25.6
과일(신선/냉동)	0.860	0.898	3.971	4.3	4.1
바나나	0.260	0.278	1.090	1.2	1.2
과일(조제품/주스)	0.430	0.493	1.836	1.9	2.1
견과류 및 조제품	0.254	0.383	0.952	1.1	1.4
채소(신선/냉동)	0.962	1.192	4.087	4.4	5.0
채소조제품	0.695	0.782	2.759	3.0	3.1
포도주	0.922	1.021	3.319	3.5	3.6
맥주류	0.679	0.641	2.805	3.0	2.7
절화류	0.309	0.325	1.362	1.6	1.5
방향유	0.418	0.523	1.825	2.1	2.2
담배	0.218	0.160	0.761	0.9	0.6
유지종자류	0.554	0.656	2.933	2.5	3.3
식물성기름	0.429	0.520	2.253	1.7	2.5
설탕 및 가공품	0.546	0.528	2.124	2.2	2.1
코코아 및 가공품	0.688	0.594	2.586	2.8	2.2
커피 및 가공품	0.458	0.559	2.163	2.3	2.6
고무류	0.240	0.375	1.331	1.6	2.1
홍차 및 양념류	0.405	0.356	1.621	1.7	1.4
기타 음료 및 종자류	0.344	0.447	1.714	1.9	2.1
전체	12.659	13.976	52.701	56.0	58.0

자료: USDA, ERS.

6. 지역별 농산물 수입 전망

2005년 캐나다와 멕시코로부터의 수입은 전년 대비 17억 달러 증가한 200억 달러로 지난해 11월 전망보다는 8억 달러 상향조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런 증가세는 주로 육류와 신선채소와 같은 원예 농산물의 수입증가에 기인하고 있다.

2005년 남미로부터의 수입액은 칠레, 아르헨티나, 에콰도르, 콜롬비아, 페루로부터의 원예 농산물 수입증가에 힘입어 지난해 11월 전망보다 4억 달러 상향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지역으로부터의 아보카도, 망고, 멜론, 파인애플, 벨리 등의 수입이 증가하는 추이에 있다.

2005년 유럽연합으로부터의 수입액은 유로 대비 달러의 평가절하로 인해서 지난해 11월 전망보다 6억 달러 상향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식물성 기름, 고무, 커피, 코코아 등 동남아시아로부터의 열대성 농산물의 수입은 11월 전망보다 6억 달러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인도 등 남아시아로부터의 수입액은 캐슈너트, 홍차, 향신료, 쌀, 천연약품, 향유, 땅콩유 등의 수입증가에 힘입어 11월 전망보다 2억 달러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05년 호주로부터의 수입액은 쇠고기, 양고기, 낙농품, 과일류, 견과류, 설탕, 포도주 등의 수입증가에 힘입어 11월 전망보다 2억 달러 상향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표 7 지역별 농산물 수입액 전망

단위: 10억 달러

	2003	2004	2004	2004년 비중	2005년 전망	
	10월~12월				2004. 11	2005. 2
서반구	6.346	7.015	26.855	51.0	28.4	29.5
캐나다	2.777	2.954	11.277	21.4	11.7	12.0
멕시코	1.620	1.858	7.023	13.3	7.5	8.0
남미	1.417	1.652	5.940	11.3	6.4	6.8
브라질	0.441	0.467	1.637	3.1	1.7	1.7
콜롬비아	0.262	0.291	1.133	2.1	1.3	1.3
칠레	0.259	0.286	1.317	2.5	1.4	1.5
기타 남미	0.455	0.608	1.854	3.5	2.0	2.4
중미	0.461	0.484	2.251	4.3	2.5	2.4
코스타리카	0.188	0.188	0.903	1.7	1.0	0.9
기타 중미	0.273	0.296	1.348	2.6	-	1.5
카리브 연안국	0.071	0.067	0.364	0.7	0.4	0.4
유럽/유라시아	3.362	3.648	12.515	23.7	13.2	13.5
EU-25	3.251	3.519	12.078	22.9	12.4	13.0
기타 유럽	0.095	0.113	0.378	0.7	0.7	0.5
FSU-12	0.017	0.015	0.060	0.1	0.1	0.1
아시아	1.590	1.880	7.359	14.0	8.1	8.7
동아시아	0.561	0.622	2.481	4.7	-	2.7
중국	0.354	0.397	1.579	3.0	1.9	1.8
기타 동아시아	0.208	0.225	0.903	1.7	1.0	1.0
동남아시아	0.849	1.024	3.993	7.6	4.2	4.8
인도네시아	0.307	0.352	1.445	2.7	1.6	1.7
태국	0.219	0.276	1.027	1.9	1.1	1.3
기타 동남아시아	0.323	0.397	1.520	2.9	-	1.9
남아시아	0.180	0.234	0.885	1.7	1.0	1.2
인도	0.163	0.211	0.810	1.5	0.9	1.0
오세아니아	0.891	1.015	4.035	7.7	4.3	4.6
호주	0.595	0.693	2.387	4.5	2.6	2.8
뉴질랜드	0.270	0.295	1.573	3.0	1.7	1.7
아프리카	0.328	0.261	1.344	2.5	1.5	1.1
사하라남부	0.300	0.235	1.191	2.3	-	0.9
코트디브아르	0.108	0.087	0.497	0.9	0.6	0.4
중동	0.142	0.158	0.593	1.1	0.7	0.7
터키	0.084	0.090	0.352	0.7	0.5	0.4
전체	12.659	13.976	52.701	100.0	56.0	58.0

자료: USDA, ERS.

자료: USDA, ERS. "Outlook for U.S. Agricultural Trade", 2005. 5. 24
(김상현 ksh3615@krei.re.kr 02-3299-4369 한국농촌경제연구원)